

“아홉 분 결사, 한국불교 중흥의 길로 이끄시길”

법장 스님의
지법개차



40. 상월선원 결사

2019년 동안거를 앞두고 위례신도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9분 스님들께서 ‘상월선원’을 개원하고 위례전막결사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엄동설한의 동안거에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며 화두 일념의 두타수행을 한다는 소식에 전국 의 많은 사찰과 신도화들도 외호와 기도를 하면서 결사에 동참하겠다는 원력을 나타내고 있다.

불교는 부처님이 계시던 시기부터 수행자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생활로 원력과 지향점을 구현했다. 불교 삼보의 하나인 ‘승가(僧伽, samgha)’가 4인 이상의 출가 수행자가 모인 수행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에서도 그 탄생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모인 출가자들은 공동의 수행이나 발원으로 모인 집단이기에 ‘화합승(和合僧)’ 또는 ‘화합중(和合衆)’이라고 불리며 함께 90일 간의 수행기간인 안거를 보냈다. 불교에서 화합

대중이라고 하여 ‘화합’을 강조하는 이유도 불교 초기부터 이어져 오던 불교만의 중요한 수행의 하나로써, 공동의 목표를 두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홀로 수행하는 것보다 승가라는 단체에서 대중들과 어울려 수행하는 것을 중요시 하였고 때로는 보다 깊고 힘든 수행을 위해 같은 의지를 지닌 수행자들이 모여 ‘결사’라는 가행정진도 해왔다.

이번 전막결사는 위례신도사에 마련된 종교부지에 상월선원을 개원하여 시행된다. 비록 총림 등의 사찰에 마련된 선원은 아니지만 그곳에 9분의 스님들이 정진을 할 수 있는 임시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종래의 총림이나 사찰에서 떨어진 곳에 수행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아란야(阿蘭若aranya)라고 한다. 수행에 적합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조용히 일심으로 정진하는 수행자를 아란야 비구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수행자들은 정진 외에 생활을 위한 공양과 가사, 도구들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동남아의 상좌부 불교에서도 아란야 정진을 하는 수행자를 위해서 근처의 사원에서 공양을 준비해주거나 의복을 마

스님들의 위례전막결사 보며
두타수행 원력일념 수희찬탄
이 시대의 불교 전환점 될 것
외호대중 이타행실천 동참을

련해주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번 위례전막결사에 많은 사찰과 신도분들이 동참하여 스님들이 정진에만 일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한 불교의 오랜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불교는 수행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종교이다. 이번 상월선원의 위례전막결사는 앞으로의 불교 중흥과 포교에 중요한 기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선원에서도 일심으로 안거와 산철을 구분하지 않고 정진하시는 수좌스님들이 계신다.

이러한 스님들과 더불어 조계종단의 영향력 있는 스님들이 결사를 맺고 융맹정진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수행과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을 알릴 수 있고 그것에 감응하여 동참하는 신도들이 늘어난다면 수행과 포교가 동시에 상응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뤄진 수행은 다시 바른 회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이 그러하셨듯이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다른 대중들과 함께 나누고 느낄 때 불교의 가르침이 펼쳐지는 것이다.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아닌 그 수행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눈을 뜨고 삶의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자리타의 회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결사에서도 한국불교중흥을 수행의 서원으로 세웠고 그 서원에 함께 하려는 대중들의 의지가 모이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모인 모든 대중들의 서원은 한결같다. 우리 불교를 다시금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한결같은 서원으로 모두가 일심 정진하고 그것을 이번 동안거를 마치고 포교의 원력으로 삼아 이타행을 펼친다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가르침으로 원만한 회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발원으로 이번 동안거는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정진하는 시간으로 맞이했으면 한다.

해인사승가대학 교수s buddhastory@naver.com

“나는 경전 설하러 온 법사입니다”

이제열의
전도몽상



59. 급조된 범좌

한 선원에서 경전강의 부탁을 받고 법회에 갔을 때 일이다. 그곳은 교계에서 제법 여법한 단체로 알려졌고 선원장 스님도 남다른 원력과 수행력으로 모범이 될 만한 분이였다. 그 선원에서는 내게 1년간 매주 한차례 ‘화엄경’ 해설을 요청했다. 경전 분량이 방대하고 의미도 깊은 ‘화엄경’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신껏 풀이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던 차였다.

나는 시간에 맞춰 선원에 도착해 공부하는 불자들 안내를 받아 법당에 들어섰다. 그런데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경전을 강의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 경전 강의를 위해 급조된 범좌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불단 앞에 엄연히 기존의 범좌가 자리하고 있었음에도 보잘 것 없는 범좌를 따로 만들어 놓고 나를 앉도록 했던 것이다.

이래저래 쓸쓸함에도 나는 일단 다시 마련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나는 경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법당 한편에서 범문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신도회장에게 물었다. “나를 이 법좌에서 설법하라고 한 것이 회장님입니까? 아니면 선원장 스님입니까?” 내 질문에 범당은 술렁였고 신도들은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신도회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제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나는 신도회장에게 다시 물었다. “내가 알기로 이 도량의 범주이신 스님은 평소 ‘범에는 고하가 없고, 승속이 없으며, 차별이 없다고 늘 범문을 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요?”하고 물었다. 신도회장은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그 자리는 스님만 앉으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신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도량에 온 것은 속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경전의 말씀을 설하는 법사로 온 것입니다. 내가 속인 범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범문을 청하고 범문을 듣는데 승과 속을 나누고, 깨달

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을 나누다면 이는 세간법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화엄경’은 중생과 부처가 동체이며, 번뇌가 곧 보리이고, 아버지욕 그대로가 청정한 비로자나 법신의 몸임을 깨닫게 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범회를 일명 평등범회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이미 일체여래의 법좌에 올라 성불했다고 가르치며, 여러의 삼보가 중생의 마음 가운데에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고 설합니다. 이런 최상의 법문을 듣는 도량에서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신도들이 박수를 쳤고 기존의 법좌에 올라 설법해달라고 청했다.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꼴이 됐지만 나는 기존의 법좌에서 경을 강의했다. 그 일로 인해 법회 분위기는 좋아졌고, 그 뒤 1년 동안 경 강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한국불교는 대중의 가르침을 믿고 받는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불교는 말로만 대승이지 소승만도 못한 모습들이 적지 않다. 말로만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들라고 할 뿐 실제로

자성 공의 관점은 유부와 외도의 실체론적 사고 비판

김재권의 명상심리로 풀어보는
불교교리



88. 공성의이해방식 1

대승불교에서 공성(空性, śūnyatā)은 ‘반야경’의 ‘모든 존재는 자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공(一切法無自性空)’이라는 입장에서 이해된다. ‘반야경’의 공성은 내적으로 존재의 구성요소로서 법이 승의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실일체 유부의 실체론적인 사고를 비판함과 동시에 이와 유사한 실체론적인 사고경향을 가진 바이셰시카 등 외도들의 견해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반야경의 ‘모든 존재(=법, dharma)는 자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공’이라는 입장을 잘못 파악하거나 과도하게 해석할 경우 악취공이나 허무주의에 빠질 소지가 있다.

이런 점에서 대승 논사인 나가르주나(龍樹, 150~250)는 대표 저작인 ‘중론’ 제24장 ‘4성제의 고찰’에서 공과 공성에 대한 표현과 그 관계의 문제를 승의와 세

속이라는 이제적인 관점을 통해 설명한 후, 악취공(惡取空)의 위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즉 “잘못 파악된 공성(惡取空)은 지혜가 모자란 자를 파괴한다. 마치 잘못 움켜쥔 뱀이나 잘못 행해진 주술과 같이.(24-11)” 이른바 공성은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부가 주장하듯이 그 현상적 존재의 너머에 존재한다고 보는 고유한 본질(自性)을 연기적인 관점에서 그 어디에도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성은 이제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기에, 용수는 악취공의 위험성을 잘못 움켜쥔 뱀이나 잘못 행해진 주술과 같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예컨대 ‘반야심경’에서 5온·12처·18계·12연가·4성제 등이 모두 공하다고 설하고 있는데, 공의 도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우 초기불교에서 벗어나 제시한 주요한 교설의 가르침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이해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반야심경’ 도입부의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는 조건문을 고려하면, 5온 등의 공성에 대한 기술은 승의적

대승의 논사인 나가르주나는
공을 승의와 세속 이제로 설명
유가행파, 잘 파악된 공성 통해
유부와 용수 입장 비판적 지양

인 차원에서 설해짐을 알 수 있다.

초기 유가행파의 최초기의 논서인 ‘보살지’ 제4장 ‘진실의품’에서는 초기경전의 ‘소공경’을 인용하여, 잘 파악된 공성(善取空)과 잘못 파악된 공성(惡取空)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즉 “그러면, ‘잘 파악된 공성’이란 어떠한 것과 같은 것인가? 어떤 A가 어떤 B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B는 A의 관점에서 공이라고 바르게 본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C(B-A)가 남겨진 경우, 현재 존재하는 그 C는 여기에 존재한다고 여실하게 안다. 이것이 여실하게 전도되지 않은 공성에 대한 파악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면, 이미 시설한 바와 같이 색 등으로 명명되는 ‘실재’에 색 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설적 언어표현을 본질

로 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색 등으로 명명되는 ‘실재’는 가설적 언어표현을 본질로 하는 관점에서는 공이다. 그런데 그 경우에, 색 등(A)으로 명명되는 ‘실재’(B)에 남겨진C(B-A)는 도대체 무엇인가? 참으로 그것(C)은 즉 색 등(A)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설적인 언어표현의 의지처이다. 그리고 그 양자[색과 가설적 언어표현]은 즉[각각] 현재 존재하는 ‘실재’에 지나지 않은 것’과 실재에 지나지 않는 것에 있어서 ‘가설’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여실하게 안다.(중략) 그리고 있는 그대로 진여를 언어로 표현 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진 것으로서 여실하게 안다. 이것이 바른 지혜(正智)에 의해서 잘 통달된 것으로서 ‘잘 파악된 공성’이라고 불린다.”

초기 유가행파는 가설적 언어표현은 공이지만, 가설적 언어표현의 의지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점에서 그 특징을 드러낸다. 이는 유부와 용수의 법에 대한 입장을 비판적으로 지양하여 법과 범성을 준별하여 법이 가설의 의지처임을 새롭게 밝히는 것이다.

능인대학원대학교su marineco43@hanmail.net

선원에서 ‘화엄경’ 해설 요청
가보니 범좌 급조해 따로 마련
승속 차별의식에서 벌어진 일
“화엄 가르침에 어긋나”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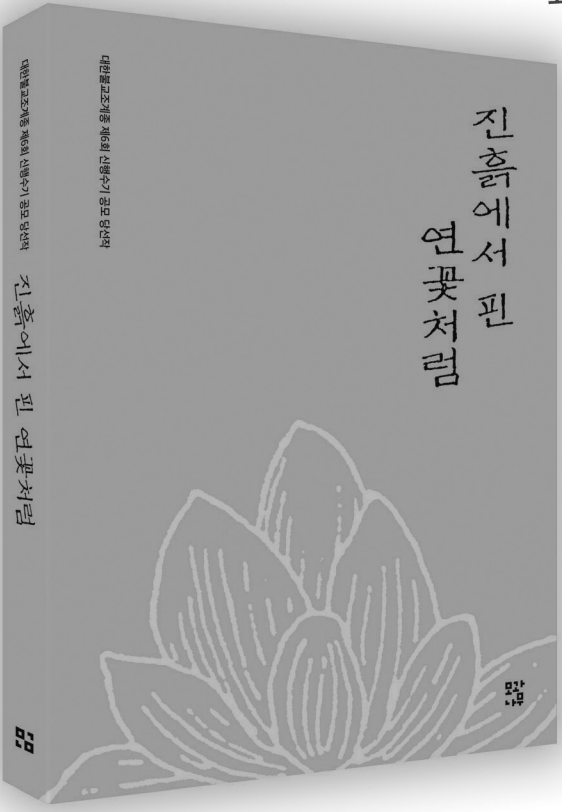
는 승과 속의 구별이 너무 심한 것이다. 과거 종단에서 중앙포교사 직분을 지니고 활동했던 선진규 법사님이 털어놓던 얘기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하루는 종단 포교원에 출근했는데 내 책상이 없어진 거야. 머리 기른 속인이 범문하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어떤 스님이 들어와 책상을 치워버렸다고 했어.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러니 불교가 어떻게 발전하겠나?”

‘화엄경’을 해설하러 갔던 수행단체에서 일어난 일도 결국은 승과 속의 지나친 차별의식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재가불자가 스님을 보듯, 스님이 재가불자를 보듯 법으로 서로 평등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과 멀어지는 것이며, 불교의 앞날도 밝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법림선원 지도법사 yoomalee@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제9회
신행수기 공모 10작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228쪽 | 값 14,000원

지혜의
신간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

대한불교조계종 제9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기도와 눈물로 싸내려간 가슴 절절한 감동의 기록,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의 끝자락에서 씌 없는 정진과 불보살님의 기묘로 역경을 극복한 불자들의 힐링 메시지.

제1회 신행수기_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2회 신행수기_ 가피
제3회 신행수기_ 믿는 마음
제4회 신행수기_ 꿈과 같고 이슬과 같으니
제5회 신행수기_ 궁덕



지혜의 향기로 마음과 마음을 잇습니다.
mogwabooks@hanmail.net | 02-725-7011

